

市교육청, 지역 교육의 미래 청사진 그린다

14일까지 '320교육발전위원회' 구성 3개 소위원회 등 운영...한달간 활동 앞서 道교육청 555명 '비전' 출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20교육발전위원회'를 꾸리고 참여 시도인 위원 320명을 공개 모집한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320교육발전위원회는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이 구성되고 통합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320'은 광주·전남인구인 320만명을 상징하며, 시도민이 주인 되는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320명이 참여해 정책의 대표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교육과 교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는 장을 마련해 소통과 참여 기반의 교육 통합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미래혁신 ▲교육혁신 ▲학교교육 3개 소위원회와 16개 분과로 꾸려지며,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지도록 희망 분야를 반영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을 구성한다.

참여 대상은 시도민이며, 오는 14일까지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5suEsusX>)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공청회와 분과별 협의회에 참여해 교육행정 통합 관련 다양한 제안과 의견

을 제시하게 된다.

고인자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 혁신"이라며 "320만 시도민의 지혜를 모아 통합 이후 교육 혁신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555명의 위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50개 핵심 과제를 발굴,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선욱기자

온·오프라인 185개 공동강좌 개설 도교육청, 학생 맞춤 교육과정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2일 "도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32개, 학교 간 오프라인 153개 총 185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과 전문 교원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학교 간, 지역사회, 대학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교육 여건을 보완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오는 7월15일까지 운영되며, 과목은 ▲인간과 철학 ▲창의융합 과제 연구 ▲세계문명과 미래사회 ▲미디어 과 제탐구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 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는 ▲기후 변화와 순천만 ▲관광 일본어 ▲현대 세계의 변화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원리 탐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과목들이 포함됐다.

박철환 중등교육과장은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여건을 넘어 학생의 배움의 폭을 넓히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1일 보성에서 업무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서는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운영 안내와 함께 나이스 업무 매뉴얼, 지역특화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 /박선욱기자



"식목일 앞두고 꽃 심어요" 식목일(4월5일)을 앞둔 2일 광주 동구 충장동 마을사랑채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양한 꽃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고 있다. /김애리 기자

'준공영제' 광주 버스, 세금 늘고 편의성 줄었다

광주경실련 버스 운영실태 분석

2019년비 재정지원금 86.2% ↑

노선 등 유지...운행거리 10% ↓

"요금 인상보다 구조 개혁 시급"

광주 시민단체가 지역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해 요금 인상보다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 광주 버스 노선 수와 정류장 수는 각각 101

개·2천379개였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103개·2천 400개로 비슷했다.

이동거리는 2019년 8천21만여km에서 2024년 7천158만여km로 약 10.8% 줄었다.

같은 기간 약 1억2천670만명이었던 승객 수는 82.6% 수준인 약 9천570만명이었고, 운송 수입액도 1천302억여원에서 1천73억원으로 17.5%가량 감소했다.

반면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재정지원금은 733억원에서 1천364억원으로 86.2%가량 증가했다. 게다가 2024년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입액의 약 127%에 달했다.

운전원 인건비·연료비·차량감가상각비 등을 활용해 환산하는 '표준운송원가'도 늘었다. 주요 비용항목이 증가하며 면허차량 대형 기준 1

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2019년 64만6천618원에서 2024년 78만8천484원으로 올랐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구조 개편이 아닌 요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준공영제는 적자를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며 "노선과 요금은 광주시가 결정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 버스회사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 속에서 재정 부담은 공공에 집중되고 경영 책임은 흐려져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시대에 대비해 광역 교통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버스 확충, 간선·지선 체계 재편, 주요 생활권 연결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형우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6:17 해질 18:55 🌙 달돋이 20:13 달짐 06:30

● 광주·전남 날씨

광주	흐려져비	7/21	장성	흐려져비	5/21
목포	흐려져비	7/18	보성	흐려져비	4/18
여수	흐려져비	7/17	함평	흐려져비	6/20
나주	흐려져비	5/21	순천	흐려져비	6/20
완도	흐려져비	8/18	영광	흐려져비	6/20
구례	흐려져비	6/20	진도	흐려져비	8/18
강진	흐려져비	6/19	흑산도	흐려져비	8/13
해남	흐려져비	6/19	고흥	흐려져비	5/19
광양	흐려져비	8/20	담양	흐려져비	5/2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1.0
남부 먼바다(북)	1.0-2.0	1.0-2.5
남부 먼바다(남)	1.0-2.0	1.0-3.0
남해 앞바다	0.5-0.5	0.5-1.0
서부 먼바다(동)	0.5-1.5	1.0-2.0
서부 먼바다(서)	0.5-1.5	1.5-2.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3:00	08:09	15:09	20:20	03:40	08:45
여수	09:30	03:40	22:14	15:45	10:25	04:45
동쪽					22:52	16:47

● 생활정보지수

🛒 **니들이 50** 🚗 **세차 30**

감기 조심해요 세차는 다음으로

🧤 **빨래 50** 🏃 **운동 50**

실내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 주간 날씨

4일(토)	5일(일)	6일(월)
☁️(13/18)	☁️(7/19)	☁️(7/18)
비내림	구름조금	구름조금
7일(화)	8일(수)	9일(목)
☀️(6/20)	☀️(6/21)	☁️(10/20)
맑음	맑음	구름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여수 수산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오전 5시 ~ 오후 10시
- 휴무일 : 둘째, 넷째 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광고문의 : 062)650-2099

여수 수산시장 내부 여수 수산시장 전경